

## 국내최초 스마트형 에어백시스템 개발

〈대기업부문〉 이재일 델파이코리아(주) 이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최초 스마트형 에어백시스템을 개발한 델파이코리아(주) 이재일 이사와 세계최초 친환경 스캔 LED Bar를 개발한 엔하이테크(주) 강찬규 이사를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인 델파이코리아(주) 이재일 이사는 자동차 승객안전 향상을 위하여 에어백 관련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전문 엔지니어로 국내 최초 스마트형 에어백시스템 등의 개발로 국내 안전시스템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형 에어백시스템은 여러 상황의 위험요소를 제거한 저위험 전개 에어백과 전복사고 대응형 커튼 에어백, 센서와 결합된 어드벤스드 에어백을 통칭하는 델파이코리아의 독자 기술명칭이다.

이 이사는 자동차용 승객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스마트형 에어백을 자동차에 적용함으로써 2004년 이후 개발되는 모든 국내 차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매년 약 1천2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10% 이상의 매출성장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 에어백시스템을 통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원가절감, 기술경쟁력

향상, 안전성 신뢰도 향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현격히 줄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이 이사는 자동차 승객의 안전에 있어서 유아 및 비정상적인 상태의 승객, 여러 다양한 사고의 유형을 센서로 파악하여 에어백 및 시트벨트의 구조와 시스템을 조절하여 승객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차세대 안전장치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델파이코리아(주)는 1989년 서한 벤딕스(주)로 설립되어, 1998년 미국 델파이사와 자본합작을 통해 2004년 델파이코리아(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국내 최초 독자모델의 안전벨트·에어백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품질부문 대통령상, 조세관련 경제부 장관표창, 노사부문 노동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고,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 자동차부품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계최초 친환경 스캔 LED 바 개발

〈중소기업부문〉 강찬규 엔하이테크(주)이사

중소기업 부문 수상자인 엔하이테크(주) 강찬규 이사는 사무기기 부품 및 LED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념해온 전문 엔지니어로 세계최초 친환경 스캔 LED 바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이사는 세계 최초로 복사기 및 스캐너에 적용되는 친환경 스캔 LED 바를 개발하여 다국적기업인 'X'사에 전면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125만 달러의 수출증대와 엔하이테크(주)의 3천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이 LED 바는 기존의 냉음극형광램프(CCFL 램프)의 문제점인 수은과 형광물질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효율을 갖춘 친환경 제품으로 향후 사무기기 시장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CFL 램프는 일정한 전압을 외부에서 공급하여 음극에서 전자를

방전시켜 가시광선을 만들어내는 LCD의 광원을 말한다. 또한, 강 이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복사기 등 사무기기의 핵심부품인 이레이저 램프를 국산화하여 유럽, 북·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가전제품의 내등 및 제어표시창을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하는 등 국·내외 메이저 회사들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엔하이테크(주)는 초기 LED 디스플레이 모듈의 개발을 시작으로 엘리베이터 표시기, OA기기의 메인보드, 가전제품 표시기, LCD 백라이트 유닛 등의 개발 및 생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을 개발함으로써 지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3천만 달러 수출의 탑, 대통령 산업포장 등을 수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글 | 편집실